

장성호가 동화 속으로... 사계절 명소 '원더랜드' 만든다



郡, 전남형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300억 투입 2026년 착수...예술공원·어린이 테마파크 등 조성

장성군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돼 300억원을 확보, 장성호 관광지를 사계절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북하면 장성호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전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다. 장성군은 올해 공모에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제안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달 15일 장성군청

에서 열린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김한중 장성군수가 김영록 전남지사에 게 '원더랜드 프로젝트' 선정을 요청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장성호관광지 인근 송정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지역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썼다. 군·도비 포함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2026년부터 북하면 장성호 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더랜드 (wonderland)'는 '동화



속 상상의 나라'라는 뜻이다. 장성호 상류지역에 자리잡은 장성호 관광지는 임권택시네마테크, 문화예술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꾸준했지만,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는 장성호관광지에 ▲예술공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숙박공간 등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시네마 특화거리, 자이언트트리, 에어바운스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춰 차별화된 관광체험을 선사한다. 특히 예술공원에는 장성 출신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임권택 영화감독을 기념하는 '임권택시네마테크'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영화 콘텐츠가 조성될 예정이며 홀로그램과 경관조명을 이용한 환상적인 야경도 설치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을 통해 낙후됐던 장성호관광지가 사계절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관광 트렌드, 빅데이터, 지역민·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돼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왼쪽)과 장성호관광지 조감도. <장성군 제공>

장흥 표고버섯 명가 재건... "주민 소득 향상"

흥화1·2호 시범재배 성과 발표...차별화·육성 전략 논의 김성 군수 "고유 품종 육성 표고버섯 산업 발전 촉매제"

장흥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1·2호의 시범재배 성과를 발표하는 현장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군의장 및 군의원, 장흥표고버섯생산자연합회, 신품종 시범농가, 유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흥화1·2호 신품종의 육성 경위와 시범재배 성과를 공유하고 재배 확대 및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시된 신품종을 확인하고 시범재배지를 직접 둘러봤다.

국내 표고버섯 원목재배는 도입된 지 30여년 된 외래품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 및 재배 환경 변화로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외래품종을 대체할 지역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추진, 우수 품종 2종을 출원했고, 2022년부터는 시범재배사업을 진행해 현재 16개 농가에서 표고버섯 원목 5만6천본을 재배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민선 6기에 시작된 표고버섯 발전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며 "흥화가 장흥군의 차별화된 고유 품종으로 자리잡아 지역 표고버섯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흥화1호는 외래품종보다 맛,



김성(오른쪽) 장흥군수가 지난 19일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1·2호' 시범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농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장흥군 제공>

향, 육질 등에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집중 3년차부터 생산량이 12배 증가했다. 흥화2호는 고온성 품종으로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아 가공제품 소재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인문학교육협 청소년 '고사성어' 경연

내일 오전 10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순인문학교육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오는 22일 오전 10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회 화순군 청소년 알자 쓰자 고사성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에서 전국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성교육 및 어휘력·문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순군이 국한문 병용 교과서를 만들어 한문 보급에 힘쓴 화가 오지호 선생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협회는 2020년 1월 개관 이후 평생학습마을배움터와 만연학당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국한문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역사문화탐방과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 홍보에 힘써왔다. 대회는 화순군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뉜다. 경연은 ▲'나의 최애 고사성어'를 주제로 한 백일장 작성 ▲'도전, 고사성어 끝내벨을 울려라' 장원전 ▲'고사성어 100문 100답' 달인전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이 고사성어를 통해 정서적 공감 능력과 도덕적 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광남 화순인문학교육협회장 (010-6733-0579) 또는 화순인문학교육협회 (061-372-2030)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내달 20일까지...불법행위 철폐

곡성군은 21일 "다음달 20일까지 5주간 심정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실제 거래 가격 이상의 상품권 수수 ▲상품권 수취한 상품권 환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곡성=김영철 기자

고흥군, 공무원 노조 임금·단체협약 체결

전 직종 기본급 3.7% 인상·경조사별 휴가 규정 등 합의

고흥군은 21일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19일 노사 양측 대표와 교섭 위원들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임금 협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 3.7%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신설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합의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경조사별 휴가 규정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노사 간 속의를 통해 이뤄낸 이번 협약으로 공무원 직원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고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공동의 주역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영민(왼쪽) 고흥군수와 문화현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이 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흥군 제공>

이에 대해 문화현 전남본부장은 "공공 무지 채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준 고흥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 직원 워킹 챌린지 '호응'

체력 증진 유도...출·퇴근 승용차 사용 줄여 친환경 경영 동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달 17일부터 11월15일까지 '직원 워킹 챌린지'를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유도하는 한편, 탄소발자국 감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챌린지는 신체활동이 적은 ▲사무직 ▲차량 운전원과 심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인 ▲교대근무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 달간의 걷기 챌린지를 통

해 직원들이 꾸준한 건강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출·퇴근 시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걷기를 장려해 친환경 경영에도 동참할 수 있었다. 진행은 모바일 앱의 커뮤니티를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최종 누적 걸음 수로 포상하는 방식이었다. 또 중간 중간 주간 포드제너와 순위 급상승 직원을 선정해 운동 의지를 북돋웠다. 챌린지 참여자 최찬호 사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걷기가 취미가 됐고 가족과 같이 거닐면서 평소 대화가 부족했던 아내와 대화가 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유화 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탄소중립 실천을 동시에 이룬 뜻 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다의안, 5-10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11일부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제2차 정례회는 21-25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이뤄진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의결과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7일부터 12월3일까지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실시하고, 4일 조례안·기

담양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내달 17일까지 2024년도 행감·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담양군의회의는 21일 "전날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17일까지 28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제2차 정례회는 21-25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이뤄진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의결과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7일부터 12월3일까지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실시하고, 4일 조례안·기

타의안, 5-10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11일부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본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은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군정 방향을 좌우할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담양군의회역량을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